

# (주) 동성 EPS



##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동성EPS는 스티로폼이 국내에 소개된 초창기인 1976년 '동성수지'라는 이름으로 현 이현주 사장의 부친인 이강웅 사장이 서울 월계동에서 설립 한 이래 최고의 품질과 신뢰를 바탕으로 스티로폼 외길을 걸어 온 기업이다.

1990년 자동화 설비를 완공하고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1년 법인전환을 통해 (주)동성EPS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주)동성EPS가 추구하는 기업 이념은 '품질 제일주의,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고객 감동'이다.

최고의 품질을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투자를 통하여 최신의 설비와 기술을 축적하여 고객이 의뢰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불량률 제로에 도전하고 있다. 한 때는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오해받아온 스티로폼을 친환경 소재로 각광 받을 수 있도록 재활용 설비투자를 확충하고, 우리 모두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국토를 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주)동성EPS와 한 번 맺은 인연을 소

중한 추억으로 깊이 남을 수 있도록 임직원 일동이 최선을 다해 고객이 감동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동성EPS의 제품은 다양하다.

최근 여러 가지 여건의 악화로 시장이 축소 돼가고 있는 기존의 농수산물 상자뿐 아니라 식품 유통산업의 발전과 함께 그 영역을 넓히고 있는 갈비상자, 김치상자 등이 주력 상품이다. 아울러 동성은 케익상자, 아이스박스 등 포장재 이 외에도 부자(淨子), 오토바이나 경주용 자전거 헬멧 등도 생산하고 있다. 양식용이나 어망용으로 쓰이는 부자는 인천지역에 공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수한 제품의 질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헬멧은 많은 양은 아니지만 꾸준한 제품 개발을 통해 동성만의 독특한 '검정 헬멧'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이 제품을 위해 착색된 원료를 수입하기도 했다.

특히 근래 (주)동성EPS가 자랑하는 것은 송이버섯을 비롯한 느타리 등 버섯상자. 익히 알려진대로 송이버섯은 일본 등지에 고가로 수출되는 고급제품임으로 안전한 운반과 신선도 유지를 위해 스티로폼상자

의 사용은 필수.

요즈음은 느타리 등 국내용 버섯도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대형시장의 경매에서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신선도의 유지가 관건이다. 스티로폼 상자로 출하한 버섯은 신선도가 좋고 오래가기 때문에 상품의 질을 인정받아 대체재 상자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상태에서도 가격경쟁력이 있다.

딸기, 포도 등 기존의 주력 스티로폼 농산물 상자가 소포장화 추세 등으로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현실에서 스티로폼 버섯상자의 개발은 블루 오션의 발견일 수 있겠다. 향후 업계의 끊임없는 신상품 개발만이 점점 위축 돼가고 있는 스티로폼 농산물상자 시장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임을 일깨우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주)동성EPS의 임직원 모두는 현재의 기술에 만족하지 않고 부단히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자 연구하며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가 보내는 이메일을 받아보면 보내는 이가 '부드러운 남자'다. 요즘 추세인 '훈남' 따라잡기인가? 아니면 받는 이들이 이름에서 느끼는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남자'를 강조하는 것일까?

현재 '(주)동성EPS'의 대표를 맡고있는 이현주(李炫奏) 사장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1991년 동성수지에 입사하여 관리 및 영업을 담당했다. 2001년 1월 회사의 법인 전환과 함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젊은 감각으로 '(주)동성EPS'를 업계의 선두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 사장은 당장 외형을 키우기보다는 내실 있는 회사를 만드는데 주력하지만 최고 품질의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에는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2007년부터 협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 사장을 만나본다.

●● 환경사랑 어떻게 하면 회사의 첫번째 기업이념인 '품질 제일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이 사장 품질이란 생산현장에서 담당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생산하는가에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작업조건, 작업환경, 종업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기 위하여 복리후생과 작업조건향상 및 설비의 현대화가 중요하다. 회사 나름대로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은 것이 또한 현실이다. 하지만 너무도 당연한 얘기이지만 어렵더라도 회사가 앞으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고 종업원들도 회사를 믿고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하다 보면 최고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 환경사랑 고객 감동을 이끌어 내려면 어떻게 해야한다고 믿는가?

●● 이 사장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가 그 자부심과 겸손함으로 고객을 대할 때 고객도 감동하지 않을까?

●● 환경사랑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으로 생산 제품인 스티로폼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시리라 보는데... 관련하여 혹 자체적 실적이나 계획은 있는지.

●● 이 사장 약 10여년 전 회수·재활용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부터 동성은 분쇄기 및 감용기를 도입하여 거래처의 페스티로폼을 회수하여 자체적으로 재활용을 하여왔다. 또한 당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가진 대리점이나 아파트 단지에도 스티로폼의 재활용을 홍보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페스티로폼을 재활용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이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꾸준히 해나갈 예정이다.

●● 환경사랑 혹 앞으로의 사업 확장 계획은 있는지?

●● 이 사장 당장의 사업 확장계획은 없다. 당분간 외형 위주의 기계증설이나 사업 확장보다는 품질 향상을 위한 내실이 있는 투자에 주력 할 계획이다. 다만 지금의 부지는 주변 여건이 급속히 바뀌고 있어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사실은 주변의 변화 여건을 감안 몇 년 전부터 스티로폼 공장이 모여있는 시화지구같은 공단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공장의 이전으로 인해 이미 이 지역에 생활터전을 잡고있는 종업원들이 부단할 현실적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이전 할 예정이다.

●● 환경사랑 스티로폼 형물업계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 이 사장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역시 전 체적 불황으로 인한 소비감소, 국제적 경쟁력 하락 등으로 인한 매출감소 및 수익 구조 악화라고 본다. 거기에는 IMF이후 업계의 과잉투자도 한몫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과잉 투자로 인한 출혈경쟁이 반복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개



인적으로 기업 상호간의 M&A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지만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있는 우리 업계의 특성상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른 방법은 새롭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EPS원료에 은나노, 황토, 숯 등 기능을 첨가한 원료를 개발한다면지하여 다양한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타 재질의 제품을 EPS제품으로 바꾸도록 유도하여 시장을 넓히고 단가도 잘 받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가 생각하는 회사 운용의 목표는 어찌 보면 소박하다. 회사가 외형을 중시해 무리한 확장을 하지 않고 내실을 기하며 종업원과 함께 키우는 것. 종업원들의 처지를 감안해 회사의 이점을 결정하는 그의 자세에서 이러한 목표가 꼭 실현 될 것을 믿는다.

언제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최상의 품질에서 자부심을 찾는 그는 틀림없이 '부드러운 남자'다. 반경사

## (주)동성EPS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487-5  
전화: (031) 574 - 4545 ~ 8  
Fax: (031) 575 - 5656